

## 걸릴 것이 본래 없음

| 용타스님 |

인간의 본성은 이미 무한이지만 오직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고 있으니, 그것을 멈추면  
늘 무한 OK임을 말합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14부)

## 062. 1 돈망

자, 어떠한가? 지금 바로 무한 퍼센트로 자유로운가? 우선 이 자유로움의 시간이 길 필요는 없다. 1초다. 무한 오케이인 의식 상태를 극히 짧은 1초 정도 경험하면 된다. 이 대목에서 몇 가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참선과 같은 닻음의 과정에서 ‘아, 이 상태는 가히 무한 오케이이다!’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체험일 뿐 깨달음이 아니다. 일단 이해나 깨달음이 전제되지 않는 체험은 신비요, 허상이요, 일회용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긴 시간 닻음을 통해 온 체험은 그 체험 정도만큼 이고득락離苦得樂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닻음을 통해서 다가온 체험은 긴 시간을 요청하므로 맥 빠지는 일이고, 나아가 그 닻음의 과정을 가진다고 해서 그 체험이 다시 다가온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깨달음을 인因으로 하여 과果로 일어난 체험은 닻음으로 인한 것과는 달리 언제라도 깨달음을 재확인만 하면 그 깨달음에 상응하는 체험이 따르는 법이다.

아들을 잃어버린 장자가 훗날 아들 하나를 입양했다. 친자식은 아니지만 친자식 못지않게 기르려고 무진 애를 썼다. 99% 친자식 같았다. 그러나 항상 ‘그래도 친자식은 아니지 않는가!’하는 일말의 유감은 떨쳐내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정보를 제공받았다. 입양한 아들이 친자식일 수 있다는 정보였다. 부리나케 친자검사를 받았다. 친자 확인이 되었다. ‘그래도 친자식은 아니지 않느냐!’하는 유감은 깨끗이 사라져버렸다. 돈법頓法의 깨달음은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친자 확인이 되지 않았을 때의 노력은 닻음이고, 점법漸法이며, 친자확인

을 함으로써 노력할 필요도 없이 본래 친자식이었음을 그냥 아는 것은 깨달음이요 돈법頓法이다. 친자親子임을 확인한 다음엔 친자로서의 적응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적응과정이 점수漸修요 점법漸法이다.

돈망頓忘이라는 무한의식 체험 역시 돈망 3관이라는 세 가지 깨달음이 어우러짐을 인因으로 하여 일어나는 과果이다. 세 가지 깨달음이 어우러지는 순간 일체一切의 장애障礙가 사라지면서 걸림 없는 무한의식無限意識을 체험한다. 이 무한의식 체험 시간이 일단 1초 정도만 되면 된다는 것이 이 단상의 강조점이다.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고 유감을 느낀다면 이해는 되나 그것은 중대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 과거의 많은 삶 동안 이것저것에 걸리는 생활을 하였으니 그것이 강력한 습관이 되어있을 것임이 당연한데, 잠시의 걸림 없는 의식 상태를 경험하면서 그 시간이 길기를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무한체험이 길지 않음을 당연한 일로 알고 앞으로 그 무한 체험의 지속을 위해 거듭 깨달음을 재생산해가면 되는 것이다. 이 작업이 선오先悟 후의 후수後修요, 돈오頓悟 다음의 점수漸修이다. 거듭 이른다. 그 짧은 1초의 돈망을 재생산再生産하면 되는 것이다. 1초 돈망을 재생산하다보면 1초와 1초가 이어져 영원하던 돈망의 지속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점점 삶의 전반이 돈망이 되고 돈망 모드mode의 의식이 형성되게 된다. 그러므로 한 번의 깨달음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려면 거듭거듭 깨달음의 재생산 작업을 해야 한다. 이 재생산이 후수後修 중의 후수이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하나의 노파심이 일어난다. 깨달음 다음에 깨달음을 재생산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해야 한다면 그냥 닦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드는 분이 있을 것이다. 일회적인 깨달음 자체만으로 존재계의 본질이 시공을 넘어서는 무한자임을 수궁함과 동

시에 느낌 차원으로 무한감無限感을 느낀다. 설혹 깨달음의 재생산이 없다 해도 한 번의 깨달음은 그렇게 위력적이다.

### 063. 돈망과 가치관

어떠한가? 지금 바로 무한 오케이인 돈망의 의식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의식 공간 전체를 100이라 할 때, 돈망은 그 중 얼마 정도의 의미가 있는가? 인생은 결국 가치관 문제이다. 10대, 20대 청소년에게 돈망을 권하여 의미 있게 받아들일 자가 몇 퍼센트나 될까? 어느 선사禪師께서 천재란 무상無常을 일찍 깨닫는 자라고 이르신 것이 떠오른다. 이 말씀은 유위有爲의 세계란 실답지 않은 것이니, 실답지 않은 유위의 세계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고 무위無爲의 세계로 마음을 돌리라는 가르침일 것이다. 환경(상황) 개선이 행복의 길이라는 가치관을 깊게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 개선이 제대로 행복의 길이라고 일러준들 소용이 있을 것인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어떠할까? 물론, 환경 개선과 마음 개선은 중도적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지만, 마음 개선이 제대로 행복의 길이라는 가치관을 얼마나 견고하게 가지고 있을까? 나아가 마음 개선 중에서도 무위無爲의 의식을 열어가는 것이 무한無限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확고한 가치관으로 들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될까?

결국 가치관의 문제이다. 도둑질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면 도둑질을 일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법이다. 꾸준히 시대마다 무위無爲를 부르짖는 성자聖者들이 있었지만 성자들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는 항상 적었다. 돈망을 부르짖는 이 용타도 유위有

爲의 늪에 떨어지곤 하지만 역시 무위無爲의 의식이 절대적으로 좋음을 알기 때문에 무위를 찬양하는 가치관을 굳게 지니고 돈망頓忘을 부르짖는다.

독자 여러분, 어떠한가? 무상無常을 깨닫고 있는가? 환경 개선도 해야 하겠지만 마음 개선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확연한 가치관으로 지니고 있는가? 나아가 시공時空을 뛰어넘는 무위無爲의 절대絕對 가치를 삶의 궁극적 가치로 수궁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용타가 제시하는 돈망頓忘부터 잡으라. 필자는 필자가 제시하는 돈망頓忘이 이 지상에서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돈망은 증證이 아니고 해解이기 때문이요, 이해理解요, 선오先悟요, 돈오頓悟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가치관 정립이기 때문이다. 바로 석가모니의 보리수하의 정각正 이 그러하였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녹야원의 첫 전법으로 3개월 전후의 시간에 60명 아라한 제자를 생산하시고 “이제, 너희들 60명과 나를 합하여 이 지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있다.”고 하신 것이다.

진정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지닌 가치관의 투영에 불과한 법이다. 삶이 소중하다면 소중한 삶을 투영해내는 가치관을 바로 해야 한다. 삶을 살 바에야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지고한 삶이어야 할 것이다.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지고한 삶이기 위해서는 보다 행복하고 보다 지고한 삶을 빚어낼 수 있는 가치관을 지녀야 한다. 최고로 지고至高한 삶은 어떤 삶일까? 마음에 일체의 걸림이 없는 완벽한 자유를 느끼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최고로 지고한 삶일 터이다. 이렇게 완벽한 자유의 삶을 살려면 마음에 걸리는 것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불교는 공空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안팎으로 걸리는 모든 것을 초월케 만든다. 돈망3觀頓忘三觀의 제 3관인 아공법공我空法空이 바로 그것이다. 돈망3관을 잘 관찰하면 그 각각이 다 유한有限을 뛰어넘는 선교방편善巧

方便임을 통찰하게 될 것이다. 돈망3관頓忘三觀은 절대 지복祉福의 삶을 살기 위한 최고 가치관의 하나일 것이다.

#### 064. 불가득공不可得空

돈망의 특색 하나는 존재하는 것들에 걸리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에 걸리면 이미 돈망이 아니다. 걸리면 무한 오케이라고 할 수 없다. 돈망이 되려면 진정 걸리는 것이 없어야 한다. 불원간에 나올 해공이 칠조解空二十七條는 걸릴 것이 본래 없음을 27가지 방편으로 증명하고 있어서 돈망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중 하나인 불가득공不可得을 소개한다.

불가득공不可得空은 금강경의 과거심불가득過去心不可得, 현재심불가득現在心不可得, 미래심불가득未來心不可得을 줄여서 쓴 말이다. 마음이 걸리려면 걸릴 대상이 있어야 한다. 걸릴 대상이 없다면 마음이 자유롭다. 걸릴 대상을 억만 가지 가지고 있는 자가 중생이요, 걸릴 대상이 본래 없음을 알고 일체의 걸림이 없이 사는 자가 부처다. 중생은 걸리는 것이 많아 괴롭다. 부처는 걸릴 것이 없어 자유롭다. 걸릴 것들을 주변에 늘어놓고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의 공덕은 있겠지만 백년하청百年河清이다. 제대로의 노력이 되려면 걸릴 것이 본래 없다는 이치를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라야 한다. 전자는 단순한 닦음(수修)이요 후자는 선오후수先悟後修다.

걸릴 대상이 본래 없다는 것이 이치로 보아 맞는 말일까? 물론 맞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치를 끌어올 수 있지만 불가득공不可得空 하나만 끌어와 봐도 된다. 내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자. 이 사과는 존재하는 것일까? 존재한다고 보면 벌써 걸리면서 마음이 불편하다. 존재하

지 않는다면 걸릴 대상이 없으니 편하고 자유롭다. 모든 존재는 시간적이다. 존재는 과거에 존재했든지, 현재에 존재하든지, 미래에 존재할 것이든지 한다. 눈앞에 있는 듯이 보이는 사과를 관찰해보자. 과거의 사과는 없다. 이미 과거로 사라져버렸으니까. 미래의 사과도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현재의 사과는 어떠한가? 누구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좀 깊게 사유해보면 없는 법이다.

현재 여기에 사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려면 사과에 닿은 빛이 반사하여 사과와 관찰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를 달려 관찰자의 안근(眼根 : 눈)까지 다가와야 한다. 관찰자의 눈에 다가와 사과로 감각된 사과는 이미 과거로 사라져버려 현재는 없는, 과거 사과의 잔상(殘像)이다. ‘현재의 사과’라고 지목되는 사과는 현재의 사과가 아니라 없어져버린 것의 잔상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 깨달음이 일어난 자는 깨달음과 현실 사이의 어떤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다. 균형이란 간단하다. 현실을 현실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치로 보면 없음이니 없음꼴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사는 것이다. 바로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이다. ‘걸림 없는 삶’이 응무소주이생기심이다. 돈망(頓忘)이라는 의식 상태를 현실로 살기 위해서는 아공법공(我空法空)이라는 깨달음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불가득공(不可得)과 같은 사유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 065. 최소한의 인문학(人文學)과 최대한의 사유(思惟)

지금까지 돈망에 대한 논의를 여러 측면에서 꾸준히 해왔다. 설명이 중복되는 감은 있으나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천하의 모든 존재는 다른 무엇인가를 원인으로 해서 존재하는 결과물이다. 돈망(頓忘)이란

존재도 무언가를 원인으로 하는 결과물이다. 그 돈망頓忘의 원인이 되는 조건이 돈망3관頓忘三觀이다. 그러하니 돈망頓忘이라는 무한의식無限意識을 경험하려면 그 3관三觀, 곧 “그냥 있다”, “기초수를 그대로 수용한다”, “아공법공我空法空이니 걸림 없이 그냥 깨어있는 것이 할 일 전부이다”를 그대로 관觀하기만 하면 된다. 돈망이라는 지붕 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사다리가 필요할 터, 그 3관三觀은 돈망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사다리이다. 나아가 사다리를 돕고, 돈망을 돕는 직간접의 사다리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관련 인문학이다. 이 용타단상에서 운위云謂되고 있는 3관三觀 이외의 모든 말씀들은 다 그 인문학이라 보면 된다. 3관 중에서 가장 큰 난맥은 역시 공리(空理：我空法空)의 이해일 것이다. 이를 위해 해공이 칠조解空二十七條<sup>1)</sup>는 가장 대표적인 인문학 서적이 될 것이다. 나아가 공리空理나 성리性理를 설명하는 불교의 다양한 경전들과 논문들이 또한 상응하는 인문학이요, 다소의 천문학이나 양자물리학 등도 돈망을 파지하기 위한 좋은 사다리 인문학이 될 것이다. “최소한의 인문학과 최대한의 사유思惟”를 유념하기 바란다. 곧 사다리는 최소한의 인문학으로 하되 그에 대한 사유는 최대한으로 요청된다는 말이다.

## 066. 우주 관점

사람의 의식은 누구나 이미 무한으로 열려 있다. 오직 스스로의 무한 의식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있을 뿐이다. 무수한 개념과 욕심과 집

---

1) 〈색즉시공〉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1개월 후쯤 출간되는데, 공리空理를 이해하는 27가지의 길을 제시하는 동사섭의 교재 중 하나이다.

착과 다양한 감정들로 제한되어 있는 의식을 다시 열어가자 하는 것이 영성운동이다. 돈망을 잠시 파지했다 해도 기준에 폐쇄되어 있던 의식 인지라 파지된 무한의 돈망의식은 다시 구름과 같은 염체들로 덮여버릴 수 있다. 그래서 깨달음에 해당하는 혜慧만으로는 마음의 온전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정혜戒定慧 삼학三學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혜智慧가 최종最重 방편方便이라 할지라도 계戒나 정定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부인은 항상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끝내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혜智慧임을 명심銘心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한다. 거듭 지혜 작업으로 들어가 보자. 지혜 작업 하나로 천문학적인 관점을 학습하는 것은 막힌 의식을 열어가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됨을 필자는 늘 느껴온 터다.

우주,  
 2천억 개의 은하계  
 얼마나 거대한가!  
 그 중의 한 은하계,  
 그 하나 속에,  
 또다시 2천억의 태양계,  
 그 중에서 단 하나의 태양계,  
 얼마나 왜소한가!  
 그 왜소한 한 개 태양의  
 만분의 한 개도 안 되는 지구라는 행성,  
 작고작지 아니한가!  
 그 지구 위에 한 개의 나라, 이것은 또 얼마나 작은가!  
 우주 속에,  
 은하계 속에,

태양계 속에,  
 티끌에 불과한  
 이 지구, 이 나라, 이 도시, 이 마을, 내 집, 내 몸.....  
 내가 속한 은하계는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먼지 같아 찾을 수 없는데,  
 내 나라, 내 집, 나를...  
 가히 없음이라 해도 되지 않겠는가!  
 나아가  
 우주宇宙라 하는 것,  
 그 우주를 무한소無限小로 지니고 있는 무한 우주 관점에서는  
 우주宇宙 역시  
 찰나 생멸하는 몽환포영夢幻泡影,

의식意識이여,  
 천하에 무엇을 의미意味로 대상화할 수 있겠는가?  
 그냥 다 놓고 허허롭게  
 무심無心이면 다이지 않겠는가!

(다음 호에 계속)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용타 스님** | 1964년 청화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6년부터 1974년까지 고등학교 독일어교사로 교단에 섰으며, 1974년부터 1983년까지 20안거를 성만했다. 미국 삼보사 회주, 성륜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재단법인 행복마을 이사장으로 1980년도부터 세상 사람들의 행복과 해탈을 위하여 [동사섭]이라는 마음공부 프로그램으로 32년 동안 수련회를 개최해왔다. 저서로는 『마음 알기·다루기·나누기』, 『10분 해탈』 등이 있다.